

鳩林地域의 王仁時代 遺蹟

全羅南道農業博物館長

金 井 昊

1. 머릿말

日本の 上古 記録에는 한반도에서 王仁(和邇吉師)이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와서 文教의 始祖가 되었다고 되어있으나 한국의 역사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고작 18세기에 일본의 기록들을 원용한 한치윤의 『해동역사』가 있을 뿐이다.

王仁의 실존여부와 관계없이 4 - 5세기에 백제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 일본의 고고학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왕인박사가 백제에서 건너간 인물임을 전제로 그 출발지가 전남 영암군 군서면 구림이란 주장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져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학자는 한국 기록에 없는 역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본디 역사사실은 자국의 기록만으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록이 부족한 上古史나 향토사는 주변국가의 역사기록은 물론 지역의 전설이나 신화, 민속도 동원해야 하고 출토되는 유물의 고고학적인 편년과 지역의 환경 등을 종합해 추론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왕인박사의 영암 구림 탄생 및 渡日說은 지나치게 전설에 치우쳐왔기 때문에 학계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道說국사의 윤색된 전설을 사실과 혼동한 나머지 오히려 왕인 탄생설에 반신반의 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아서 더욱 문제가 되어왔다.

도선국사 전설의 잘못된 부분은 이미 李能和씨의 『朝鮮佛教通史』가 명백히 하고 있으나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앞서 조선중기때 문신인 車天輅(1555~1615)도 「五山說林」에서 道說의 입당설을 부인했다. 李씨는 道說의 가장 믿을만한 기록은 白雲山 玉龍寺에 있던 崔惟清(1095 - 1174)의

碑文이라고 못하고 있다. 그는 宏演의 「道詵傳」이나 李景奭의 1653년 碑文, 1743년의 朴智수 「道詵國師實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논증하고 있다.

그는 그 증거로 물에 떠내려오는 오이를 먹고 잉태했다는 탄생설화는 和順 출신 眞覺國師(1178 - 1234 · 崔永乙)의 탄생설화를 부회한 것이고 唐나라를 다녀왔다는 전설은 그의 스승인 惠徹(784 - 861) 스님의 入唐 경력을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도선국사가 당나라에 건너가 풍수지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一行선사는 도선국사가 태어나기 1백년 전에 이미 저승에 가버린 스님이다. 그의 塔碑는 중국 浙江省 天台山 國清寺 경내에 있다.

이처럼 道詵은 鳩林에서 태어난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俗姓이 崔씨가 아니고 金씨이며 어머니 성씨도 崔씨가 아니고 姜씨이다. 이 점을 안다면 오히려 道詵국사 전설이 王仁박사의 전설이나 사실을 이어받은 전설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王仁 전설의 사실에 근접할만한 鳩林 일대의 문화바탕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어야 할 차례이다. 일부 논자들은 일본의 기록처럼 백제나라에서 왕인박사를 보냈거나 초청을 받았다면 백제의 중심지인 한강유역 사람이 아니고 하필이면 변방인 영산강유역 사람이냐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 그 동안 영산강유역의 고고학적인 물증을 흡족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 제시된 것은 고작 이 지방에 보편화 되어온 도선국사 전설과 겹친 訖善 왕인 전설과 이에 관련한 石人像, 冊窟, 지침바위, 상대포, 聖基洞 정도이다.

이 점 이 고장의 향토사학을 한다는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점은 그 동안의 한국고고학이나 韓·日관계사가 지나치게 王都中心으로 진행된 탓도 있다. 특히 전남은 영산강유역 종합개발과 주암댐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제발굴이 주류를 이뤄왔을뿐 지역 上古史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된 일이 없다. 뿐만아니라 지역사학이 고고학 전공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후진성에도 그 원인이 없지 않았다.

2. 榮山江流域의 文化遺蹟

지난 94년 12월 8.9일 金海에 있는 仁濟大學校가 「加耶諸國의 鐵」이란 제목으로 가야문화에 대한 韓·日국제학술대회를 가진 뒤 그 결과를 95년 11일 학술총서 제1집으로 냈다. 이때 종합토론편에서 '영산강공화국'이란 술어를 쓴 대목(p 208)을 읽었지만 4~5세의 영산강문화현상을 백제와 구분지어 馬韓文化라고 일컫는 학자들도 없지않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아즈마 우시오(東潮·德島大學) 교수는 일본열도의 鐵鋌은 신라지역보다 加耶와 慕韓지역의 것으로 추정된다(p 108)고 주장하고 영산강유역인 영광·나주·영암·해남의 네지역 10개 분묘에서 20여매의 철정이 집계되었다(p 116)고 밝히고 있다. 70년이후 加耶지방에서 발굴한 분묘는 72基에 달하므로 20여基의 수습발굴에 그친 영산강유역의 유물과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다. 영산강유역에서는 冶鐵址에 대한 지표조사마저 집계된 바가 없다. 이점에 대해 본인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지만 아즈마 우시오교수가 주장한 바와 같이 4~5세기의 철생산과 일본과의 관계에 영산강유역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에 공감하고 있다. 가야철토론회에서 스즈키야스타미(鈴木靖民·日本國學院大學)교수는 그동안 七枝刀의 생산지인 谷那를 황해도 谷山으로 비정해왔지만 全南의 谷城도 무시할 수 없다(p 205)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본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谷那를 전남 光陽의 骨若과 海南의 郡(軍)谷里 銀所, 그리고 전남 羅州 鳳凰面의 鐵冶에서 고고학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어온 터이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 문제로 靈岩 일대의 冶鐵址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崇實大學校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231호 銅鎔范(鐵斧거푸집)이 정말로 영암의 鳩林 가까운 곳에서 나왔다면 그곳은 어딜까. 지표상의 흔적이나 지명을 중심으로 살폈더니 의외로 여러 곳에서 쇠와 금과 은을 다뤘던 흔적이 있다. 道岬寺 주변에서도 鐵滓(slag)가 나오는 곳이 두곳이나 있고 長川里 선사주거지 곁의 鐵岩은 쇠바우, 금바우라 부르는 사금산지이며 鶴山面 梅月里 늦점골에는 두곳에 쇠똥이 있는 야철터가 있다. 같은 학산면 金溪里에는 바로 윤금동이라는 쇠골 및 사금터가 있으며 西湖面 錦江里 '금개'도 쇠산지이다. 郡西面 성지리와 마산리 불무등과 쇠지내, 美岩面 採芝里 은굴, 三湖面 山湖리 金谷(쇠골) 美岩面 南山里 銀谷 등 鳩林으

로 부터 반경 30리 안 10여곳에 야철지가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유적은 鶴山면 龍沼里의 紙所터, 鶴溪里의 墨店, 美岩면 採芝里의 紙匠골과 10여곳에 이르는 사기 점골과 불무등, 점등 따위 窯址들이다.

흔히 영암사람들이 조선 중기의 이고장 金完장군이 쌓았다는 道岬寺 입구 '학성 군城'은 1943년 조선보물고적조사보고 때 이미 馬韓때 城이란 보고가 있다. 물론 읍내 곁에 있는 馬山리 성피나 美岩면 仙皇山의 성피, 斗億里의 성피 등은 고려 이전의 성터이다. 물론 이 유적들은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유물에 대한 성분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鳩林일대가 독립적인 古代生活圈域을 이루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생활용품 생산지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古事記'에 적힌 베를 짜는 사람과 관련이 있음직한 務安고을은 바로 鳩林물목인 강건너 땅이다. 통일신라때 務安郡이란 이름을 얻은 이 고을의 별칭은 이미 이때 綿州라고도 불렸으며 문익점이 면화씨를 가져오기 이전부터 길쌈으로 이름이 높던 고장이다.

3. 全南의 陶磁生産

나는 金海 사람들이 鐵을 가지고 上古史에서 차지하는 그 고장의 文化 비중을 다루는 것을 보고 하나의 힌트를 얻었다. 全南은 질그릇을 가지고 上古史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전남 만큼 양질의 고령토가 많은 지역도 없다. 뿐만아니라 전남의 구릉지대는 모두 황토로 이뤄져 있으며 산의 돌은 질그릇의 유약이 되는 장식류이고 같은 재료로 쓰이는 조개껍질이 무진장하다. 뿐만아니라 농경민족은 세계 어느곳에서나 철기나 목기보다 질그릇을 애용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남은 예로부터 질그릇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나주 반남지역이나 영암 시종지역의 고분에서 대형 옹관이 나오는 것이나 고려청자나 녹청자 유적이 이 지역에 많은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87년 梨大박물관 팀이 東鳩林 돌정고개에서 발굴한 土器가마에서도 이같은 지역성 특성이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발굴 여건 때문에 6基의 가마 중 2基만을 발굴하는데 그쳤지만 이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편들은 이 고장 자원을 반영하듯 綠褐色 施釉를 한듯 싹은 그릇조각들이 나왔다. 이는 일반토기를 굽더라도 월출산 돌가루가 그릇 표면에 묻으면 모두 유약에 쓰이는 홍장석이므로 의도적으로

유약을 바른 그릇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異形의 그릇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발굴팀은 이곳 토기들이 신라통일시대의 것이라고 결론 지으면서도 가마의 형식은 전형적인 백제토기가마로 고창 운곡리가마나 익산 신용리가마와 비슷하고 일본 大阪의 5세기 중반 陶邑가마와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9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보고논총 90-5로 낸 「古代韓日文化交流研究」에 향토사학을 하는 본인에게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음을 보았다.

89년 11월 17일 정신문화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토론장에서 公州박물관 崔鍾奎씨는 일본 陶邑가마의 須惠器의 관여지역을 영산강유역으로 보고 일부 경상도지역의 참여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p167)

당시 화제로 삼은 영산강유역의 토기는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2호분(墳)의 개배(蓋盃)뿐이었지만 이해 9월 23일부터 발굴한 만수리 4호분 유물이 학계에 보고되기 이전이었다. 주로 만수리 고분발굴에 참여해온 국립박물관 成洛俊씨는 영산강유역에서는 백제 특유의 토기와는 三足土器가 없고 平底 토기가 없는 대신 구멍단지나 장군단지의 특이성과 馬具와 거울이 안보인다는 특징을 밝힌바 있다. 이는 농경지적인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4호(15基) 널무덤에서는 회청색 경질 네귀 구멍단지 그리고 쇠낫, 쇠손칼, 쇠도끼 구슬따위가 나왔다. 그중 10호 덧널무덤에서 나온 회청색 경질 목잔은 그동안 가야지방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곳 목잔이 이미 경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成洛俊씨는 이 목잔이나 단지가 신라나 가야 것과는 다른 것이며 일본은 陶邑開窯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광주시립박물관 총서 20책 p79) 물론 成씨는 이보다 앞서 84년에 낸 광주박물관 총서 제3집 「영암 만수리 고분군」 조사보고서에서 2호분에서 나온 구멍단지와 구멍장군은 국내 다른지역에서 발굴된 예가 없으며 일본 須惠器 1형식에 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일본 大阪의 陶邑에서는 백여기의 가마터가 발견되고 발굴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영암일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무덤독과 그 부장품을 생산해 낸 가마터발굴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가운데 가마가 있었을만한 야산이나 구릉은 지표조사를 제대로 한 바 없이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陶磁史자료들을 잃어가고 있

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한반도 渡來人집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陶邑窯址일대가 王仁집단의 渡來人 정착지 河內(가와치)라는 사실에 있다. 陶邑가마에 인접한 羽曳野市 古市町の 西淋寺는 왕인의 후손을 자처하는 西文씨 氏寺이며 그 동쪽 富田林市の 百濟村에는 錦織씨의 氏寺인 錦織神寺가 있고 이곳 宮町에는 王仁池와 和爾宮이 있다. 이 가마터 가까운 松原市 岡町에는 王仁이 공부를 가르쳤다는 王仁聖堂址가 있고 가마터 중심이라 할 堺市 家原町은 王仁의 후손이라는 行基스님(668-749)의 생가터 家原寺란 절이 있다. 陶邑窯의 중심인 陶器町에 行基스님이 세운 高倉寺란 절이 있는 탓으로 이곳 陶邑窯는 行基窯라는 별칭이 붙어 있음을 생각할 때 영산강 질그릇 문화를 물증으로만 따질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王仁으로 상징화된 榮山江文化

오늘날의 靈岩은 통감부통치가 시작된 1906년에 정해진 郡界를 지키고 있다. 이 때 지금의 海南郡 동쪽 옥천면, 송지면, 북평면 등을 넘겨주고 羅州의 終南面과 新北, 金井面 및 珍島의 命山面을 편입했다. 물론 1915년에 鶴山面에 속해 있던 밤재너머 城田곶 新坪과 船津을 해남 溪谷面에 넘겨주고 무안 押海面에 속해 있던 羅佛島를 받아들이는 등 일부 변동은 있었다.

1896년 莞島郡이 독립하기 전에는 지금의 莞島 몸섬의 서쪽과 어룡도, 넙도, 보길도, 노화도, 자지도, 추자도, 달도까지를 관할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高麗 건국후인 太祖 23년(940)에는 지금의 長興郡(定安縣·遂寧縣) 해남 읍내엔 玉山縣, 화원, 문내, 마산면이 된 竹山縣, 黃原郡, 康津郡 등을 관할했으므로 오늘날의 長興 및 海南郡과 莞島郡의 절반가량이 靈岩郡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巨鄉이 된 것은 중국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의지가 강했던 靈岩중심부 郎州崔氏세력의 王建太祖 협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앞선 신라통일시대에는 나주 潘南面에 있던 潘南郡이 靈岩郡보다 세력이 커서 지금은 靈岩郡이 되어 있는 新北, 金井面일대의 野老縣(安老縣) 영암군 학산, 서호, 미암, 삼호에 있던 昆湄縣을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 영암군 지역은 오늘

날의 덕진과 읍내, 군서에 불과했으며 그곳에 마저 덕진에 冬百所, 郡西에 회의部曲과 鎭南鄉의 별개집단이 있어서 月出山 산기슭의 몇개 동네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앞선 百濟때는 金井面중심의 阿老谷縣, 미암면 중심의 古彌縣, 그리고 군서면 중심의 月奈郡으로 각각 독립해 있었고 始終·都浦쪽은 潘南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당시는 德津浦로 들어오는 개용과 鳩林~華松쪽으로 드나들던 夢海개용으로 갈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웅관묘가 당시 海南 중심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에 집중해 있는 현상은 흥미를 끈다.

이 세 지역중 가장 먼저 사람이 많이 산 흔적은 昆湄에 속했을 銀積山기슭이며 두번째 지역이 始終·潘南구릉 중심의 農耕흔적이고 月出山을 등에 짊어진 鳩林지역이 가장 늦게 세력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지역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나누자면 昆湄지역은 靑銅器 선사문화지역, 潘南지역은 鐵器농경부족정착지역, 鳩林지역은 역사문화지역이라 할 수 있다.

지표상의 고분을 중심으로 이 세곳을 비교해 보면 선주민지역이라 할 昆湄지역은 고분이 3基에 불과하지만 支石墓가 392基나 집중해 있고 潘南지역은 支石이 130基, 고분이 135基로 비슷하다. 다만 月出山 기슭은 昆湄지역과 비슷하게 支石이 218基이며 고분도 4基에 불과하면서도 불교 및 유교유적이 집중해 있다. 이곳에 알바위(性穴)신앙이 집중해 있음도 특이하다. 이 알바위는 일본 北九州 香春杜 앞뜰에 있는 비석 기단석들에도 많다.

재미난 점은 昆湄의 백제 때 이름 古彌는 일부학자들이 말하는 곰(熊)토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啓明大 兪昌均교수는 이곳에 馬韓의 感奚國을 비정한 바 있다. 古彌지역에는 곰의 변이로 볼 수 있는 지명이 집중해 있다. 古彌의 진산이름은 검뢰(黑石山)이며 검바우(黑岩里), 곰물(犢川里 九興·熊岩), 곰바대(곰바다~西湖面 夢海) 엄길(곰바우~검바우·奄吉), 괴음(長川里 狗峴), 금개(학산면 金溪里), 금계(西湖面 錦溪) 따위를 들 수 있다.

4~5세기 이후 이 세 지역의 중심지는 월출산 기슭의 鳩林이 되었으므로 넓게는 古彌(昆湄)지역과 潘南지역은 모두 鳩林文化圈에 흡수된다. 이병도씨의 주장처럼

369년 百濟가 전남의 馬韓을 장악했다면 鳩林은 百濟세력의 거점으로 등장했음을 상상할 수 있다. 같은해 百濟와 倭의 교섭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면 百濟중심세력이 倭로 향하는 海路의 회랑이라 할 全南西南部의 어느곳인가는 징검다리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에는 高麗 때 국내 三海神堂의 하나였던 南海神堂이 있었다. 고려초 濟州에 배를 띄우려면 南海神堂 윗쪽 榮山浦에서 띄우다가 조선조에 접어들어 海南의 관동포와 康津의 七良浦로 옮겼다.

한반도 西海岸의 海流는 赤潮의 영향을 받아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남쪽에서 북쪽해안을 따라 오르기는 쉬웠지만 남쪽으로 역류하기는 힘들었다는 자연현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헌중심의 표류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북부 山東지방 표류민들이 주로 전남서해에 표류했고 전남해역의 표류자들은 중국중부인 절강성 주산군도였다. 해류와 해양 기상등 자연과학으로 관찰할 때 전남 중부해안에서 일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항로이다.

「續日本紀」의 기록과 같이 王仁이 漢高祖의 후손으로 百濟에 건너와 살았던 王狗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鳩林지역에 유입해 살다가 日本에 건너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王仁이 비록 실명의 한사람 고유명사가 아닌 4~5세 일본새문화의 발전에 공헌한 渡來집단의 연속적 상징성을 지닌 이름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전기고분, 須惠器, 한반도의 정치상황, 지리적 위치 등 정황으로 보아 영산강유역의 馬韓말기 문화집단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구림을 중심으로 후삼국시절 선진개척불교가 발전한 것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위치와 이를 소용할만한 지식계층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며 불교에 앞선 儒敎 유입창구의 기능도 전제할 수 있다. 이같은 추론은 영산강유역의 고고학적 발굴이 더욱 진전 될수록 명확히 증명되리라 믿는다. 어떤 역사사실은 몇편의 물증인 나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